

\*\*  
최 경 희

|    |                |
|----|----------------|
| 목차 | Abstract       |
|    | I. 서론          |
|    | II. 연구방법       |
|    | 1. 연구대상        |
|    | 2. 자료수집 및 절차   |
|    | 3. 연구도구        |
|    | 3. 분석방법        |
|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    | 1. 결과분석        |
|    | 2. 논의          |
|    | IV. 결론         |
|    | 참고문헌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8-G00038]

\*\*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논문투고일 : 2015.01.30.

심사일 : 2015.02.28.

계재확정일 : 2015.03.10.

## A study on improvement of teaching ability of dance teaching artist

Choi, Kyung-hee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and needs of improvement of dance teaching ability of teaching artists in school field. For this study, the field survey research base on the class observations and interviews of teaching artist are executed. The survey seeks to understand the status of dance teaching, grasp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schemes. one-hundred and fourteen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re elementary and secondary dispatched teacher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four aspects such as a perception of school field, belief of teacher, class management, and improvement suggestion. The summarized result is as follows.

Difficulties of teaching artist in relation to do their duty, half of participants perceive a instability of position as a teacher. They want to conduct dance education with self-regard and a vocation. The majority (n=72, 63.2%) indicated that a fair valu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a stability of a career through Specialist Teacher System should be secured.

Meanwhile, they perceive problems like the inappropriate environment to practice dance, the insufficiency teaching tools and materials, the shortage of time to accomplish learning object as teaching dance. In order to teach dance effectively, diversity of training aids like a guide for teacher as well as a lesson plan is needed. Also, a adequate place which affect job satisfaction is needed.

With improvement of a hire system and a better education environment, dance teachers try to set and use proper strategies for class managemen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eaching artist of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in terms of emphasis in a class, supervision of problem behavior, motivation, feedback, attention etc.

To teach more effectively, teaching artists understand various context and situation of a class. In addition, they are able to select and construct teaching strategies and skills in light of time and frequency.

**key words** teaching artist, dance education in school field, ability of dance teaching, system and environment, teaching strategy and skills

**주요어** 예술강사, 학교무용교육, 무용교수능력, 제도 및 환경, 지도전략 및 기술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양 부처 공동으로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이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위한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교사들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학교예술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무용분야의 경우 2005년 100명으로부터 시작된 파견 예술강사는 2014년 904명에 이르러 그 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대되고 있다(최경희, 2014:8).

무엇보다도 무용강사 파견으로 인한 성과는 학력신장과 무관한 활동으로 교과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표현활동 및 무용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무용수업에 대한 재미와 만족을 증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황혜원, 2008:73, 조은숙, 2009:113). 더불어 무용을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교육현장에서 지도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진로 및 직업 탐색의 일환으로 무용 전공생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여러 연구를 통해 학교파견 무용강사 제도의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 연구(황혜원 2008; 홍한나, 2013; 이병준, 2014; 탁지현, 2014)에서는 1년 계약직에 따른 재임용 여부의 불안감,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한 예술강사 평가체제, 수업하기에 적절치 못한 공간제공,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무용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언급된 예술강사의 채용 및 처우 등 신분상의 문제, 공간 및 기자재 등과 관련한 수업환경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환경적 문제요인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맥락을 이해하고 그 맥락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교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독특한 수업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기술 및 기법 등 수업전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최경희, 2007b:56).

이에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무용지도에 영향을 미칠 제도 및 환경에 대한 무용강사들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함과 더불어 실제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무용강사들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므로 교육현장에서의 무용교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용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안과 실천방법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활동 중인 무용강사들의 수업관찰과 심층면담을 토대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일반화하기 위해 현장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내용은 교육현장, 교사관, 교육운영, 개선안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무용지도에 영향을 미칠 제도 및 환경 등 외적 요인과 더불어 실제적인 수업운영과 관련한 무용강사의 인식 및 요구 등 수업상황과 관련한 현장중심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무용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기본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현장으로 파견된 무용강사들로 비확률 표집 중의 하나인 유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지역 예술강사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및 온라인 설문 진행에 제한이 있어 대상자 참여 및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문화재단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를 승인한 인천, 강원, 대전, 전북 문화재단 예술강사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대상 및 내용에 따른 인식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 및 중등으로 대상자를 나누었으며 표집된 유효 표본 수는 총 119부로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일부 응답이 누락된 5부를 제외한 114부이다.

표 1. 분석된 자료의 변인별 통계

| 구분 | 수(개) | 비율(%) |
|----|------|-------|
| 초등 | 80   | 70.2  |
| 중등 | 30   | 26.3  |
| 고등 | 4    | 3.5   |
| 계  | 114  | 100.0 |

##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차적으로 설문도구를 작성하기 위해 무용강사를 대상으로 수업관찰 및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에서 관찰된 수업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수행동과 심층면담을 통한 강사의 견해를 토대로 결과를 정리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설문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유미 외 6인(2011)과 정석기(2010) 박승배(2005), Kassing, K. & Jay, D.M.(2003), Gibbons, E.(2007)에 제시된 수업운영을 위한 기술 및 전략 등과 관련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무용 강사들에게 2차에 걸쳐 사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지역 예술재단에 연구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전화를 통해 협조를 얻어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무용 강사들의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 20일~2014년 2월 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서울·경기문화재단, 2차 인천·강원문화재단, 3차 대전·전북문화재단 소속 무용 강사들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설문지 발송 후 기한 내 회수율을 확인하여 회수율이 낮은 경우 재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일부 신원이 확보된 강사의 경우 전화를 걸어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무용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으로 교육현장(예술강사로서 활동 및 수업 실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교사관(교수유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념), 교육운영(동기유발, 발문, 피드백, 주의집중 등 수업 전략), 개선안에 대한 무용강사들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심층면담 대상자보다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보여지는 교수 현황 및 제기되는 문제점, 무용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안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일반성을 갖고자 하였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도구

| 영역     | 수(개)           | 비율(%) |
|--------|----------------|-------|
| 개인적 배경 | 교급             | 5     |
|        | 활동연수           |       |
|        | 전공             |       |
|        | 배정 받은 시수       |       |
|        | 같은 교급의 학생 지도경험 |       |

표 2. 연구도구

| 영역             | 수(개)                     | 비율(%) |
|----------------|--------------------------|-------|
| 교육현장           |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       | 4     |
|                | 무용수업을 하는데 어려운점           |       |
|                | 어려움을 느끼는 교육활동            |       |
|                |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       |
| 교사관            | 이상적인 무용수업                | 6     |
|                | 수업 중 강조하는 부분             |       |
|                | 바람직한 학생관                 |       |
|                | 무용교사로서 필요한 능력            |       |
|                | 현재 보완이 필요한 지식            |       |
|                | 미래 무용교사로 갖추어야 할 지식       |       |
| 교육운영           | 교안 활용 여부                 | 15    |
|                | 주어진 수업시간에 대한 생각          |       |
|                |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       |
|                | 학생들의 문제행동                |       |
|                | 문제행동 시 대처방안              |       |
|                |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       |
|                | 수업 전 준비                  |       |
|                | 동기유발 방안                  |       |
|                | 동기유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       |
|                | 수업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수방법 |       |
|                | 여러 교수방법을 활용한 수업여부        |       |
|                |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       |
|                | 수업 중 질문의 목적              |       |
|                | 피드백 제공시 초점               |       |
| 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       |
| 개선안            | 미래 예술강사 활동여부             | 3     |
|                | 교육현장에서의 개선사항             |       |
|                | 무용수업에서의 개선사항             |       |
| 합계             |                          | 33    |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기술통계를 통한 빈도(%) 분석이다.

1. 결과분석

1)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1)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

표 3.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

|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  |            |            |              |
|---------------------|------------|------------|--------------|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초등         | 중등         |              |
| 예술강사 인식, 배려 부족      | 17 (21.3%) | 6 (17.6%)  | 23 (20.2%)   |
| 학교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      | 5 (6.3%)   | 2 (5.9%)   | 7 (6.1%)     |
| 교사 준비 및 역량 미흡       | 1 (1.3%)   | 2 (5.9%)   | 3 (2.6%)     |
| 신분, 지위에 대한 막연함, 불안정 | 50 (62.5%) | 14 (41.2%) | 64 (56.1%)   |
| 수업준비, 운영 등 업무 과다    | 4 (5.0%)   | 1 (2.9%)   | 5 (4.4%)     |
| 학생에 전달되는 영향력 미진함    | 1 (1.3%)   | 4 (11.8%)  | 5 (4.4%)     |
| 지역별교육 대상의 수준 차이     | 1 (1.3%)   | 3 (8.8%)   | 4 (3.5%)     |
| 기타                  | 1 (1.3%)   | 2 (5.9%)   | 3 (2.6%)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한 초등강사와 중등강사의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강사의 경우 ‘신분 및 지위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정’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 중 절반 이상(62.5%)을 차지하였으며,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과 배려 부족’(21.3%)과 ‘학교 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6.3%)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신분 및 지위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응답률이 41.2%로서 60% 이상을 차지한 초등강사보다 낮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 및 배려 부족’(17.6%)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영향력 미진함’(11.8%), ‘지역별 교육

대상의 수준 차이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8.8%) 역시 초등 강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2) 무용수업 시 어려운 점

무용강사들이 무용수업을 하는데 어려움 점에 대한 복수응답의 결과로는 초등과 중등강사 모두 1순위로 '수업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공간' (24.5%), (30.4%)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중등강사의 응답률이 5.9% 높았다. 이후 순위는 초등강사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자료, 기자재 미흡' (19.4%), '교육활동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못한 시수배정' (16.5%), '행사 및 발표회 등 수업 외 업무 부과' (15.1%) 등에 응답률이 높았으며, 중등강사의 경우 '교육활동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못한 시수배정' (16.1%), '교육대상의 요구 및 수준을 반영치 못한 교안 내용' (14.3%),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자료, 기자재 미흡' (10.7%) 등에 응답률이 높았다.

초등 및 중등강사들은 무용수업 시 어려운 점으로 '수업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공간', '교구 및 자료, 기자재 미흡', '교육활동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못한 시수배정'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외 초등강사의 경우는 '행사 및 발표회 등 수업 외 업무부과'를, 중등강사는 '교육대상의 수준 및 요구를 반영치 못한 교안내용'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무용수업 시 어려운 점

| 무용수업 시 어려운 점(두개 선택 가능) |             |            |              |
|------------------------|-------------|------------|--------------|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초등          | 중등         |              |
| 교구 자료, 기자재 미흡          | 27 (19.4%)  | 6 (10.7%)  | 33 (16.9%)   |
| 수업에 부적절 공간             | 34 (24.5%)  | 17 (30.4%) | 51 (26.2%)   |
| 학생 통제, 통솔력 미흡          | 7 (5.0%)    | 3 (5.4%)   | 10 (5.1%)    |
| 수업의 과중한 업무 부과          | 21 (15.1%)  | 3 (5.4%)   | 24 (12.3%)   |
| 대상의 요구를 반영치 못한 교안      | 15 (10.8%)  | 8 (14.3%)  | 23 (11.8%)   |
| 충분치 못한 시수의 배정          | 23 (16.5%)  | 9 (16.1%)  | 32 (16.4%)   |
| 수업의 비연속성               | 1 (0.7%)    | 5 (8.9%)   | 6 (3.1%)     |
| 이전 수업 내용 파악의 어려움       | 11 (7.9%)   | 3 (5.4%)   | 14 (7.2%)    |
| 기타                     | 0 (0.0%)    | 2 (3.6%)   | 2 (1.0%)     |
| 전체-명(%)                | 139(100.0%) | 56(100.0%) | 195 (100.0%) |

## (3)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

표 4.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

| 지도 시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 |            |            |             |
|------------------|------------|------------|-------------|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초등         | 중등         |             |
| 한국민속무용           | 7 (8.8%)   | 4 (11.8%)  | 11 (9.6%)   |
| 외국민속무용           | 1 (1.3%)   | 2 (5.9%)   | 3 (2.6%)    |
| 창작무용             | 5 (6.3%)   | 11 (32.4%) | 16 (14.0%)  |
| 무용탐구(이론)         | 20 (25.0%) | 5 (14.7%)  | 25 (21.9%)  |
| 한국무용             | 0 (.0%)    | 2 (5.9%)   | 2 (1.8%)    |
| 발레               | 4 (5.0%)   | 1 (2.9%)   | 5 (4.4%)    |
| 현대무용             | 0 (.0%)    | 2 (5.9%)   | 2 (1.8%)    |
| 생활무용             | 2 (2.5%)   | 2 (5.9%)   | 4 (3.5%)    |
| 예술만나기(통합)        | 38 (47.5%) | 1 (2.9%)   | 39 (34.2%)  |
| 기타               | 3 (3.8%)   | 4 (11.8%)  | 7 (6.1%)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100.0%) |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에 대한 초등강사와 중등강사의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강사의 경우 ‘예술만나기(통합교과)’(47.5%), ‘무용탐구(이론)’(25%), ‘한국민속무용’(8.8%)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중등강사의 경우는 ‘창작무용’(32.4%), ‘무용탐구(이론)’(21.9%), ‘한국민속무용’(11.8%)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활동 중 ‘창작무용’의 경우는 중등강사가 초등강사보다 26.1% 높아 중등강사가 초등강사보다 창작무용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사관

### (1) 이상적인 무용수업

표 6. 이상적인 무용수업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적극적 움직임, 창의성 표현과 발현     | 42 (52.5%) | 16 (47.1%) | 58 (20.2%)   |
| 규율과 규칙 준수, 설정된 목표·절차 전개 | 3 (3.8%)   | 1 (2.9%)   | 4 (6.1%)     |
| 학생들과 의견교환 및 상호작용        | 13 (16.3%) | 2 (5.9%)   | 15 (2.6%)    |
|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하는 놀이 중심     | 18 (22.5%) | 11 (32.4%) | 29 (56.1%)   |
| 하나의 교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 1 (1.3%)   | 2 (5.9%)   | 3 (4.4%)     |
| 탐구, 과제를 해결해가는 학생 중심     | 3 (3.8%)   | 2 (5.9%)   | 5 (4.4%)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이상적인 무용수업에 대한 초등강사와 중등강사의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강사의 경우 모두 1순위로 ‘적극적인 움직임과 표현성을 발현할 수 있는 수업’ (52.5%)(47.1%)에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이후로는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하는 놀이중심 수업’ (22.5%)(32.4%), ‘학생들과 의견교환 및 상호작용이 잘 되는 수업’ (16.3%), (5.9%)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순위 상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중등강사가 이상적인 무용수업으로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하는 놀이 중심 수업에 9.9%, 초등강사는 수업 중 학생들과의 의견교환 및 상호작용이 잘 되는 수업에 10.4%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 (2) 수업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

수업 중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초등강사와 중등강사의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강사의 경우 1순위는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움직임’ (58.8%)(55.9%)이었으며, 이후는 ‘창의적인 사고개발과 상상력 확장’ (25.0%)(20.6%), ‘수업 중 규칙과 규율 준수’ (8.8%)(14.7%)순이었다. 인식 순위 상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세부사항 중 초등강사는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움직임에 2.9%, 창의적인 사고개발과 상상력 확장에 4.4%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중등강사는 수업 중 규칙과 규율 준수에서 5.9%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7. 수업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규칙과 규율 준수        | 7 (8.8%)   | 5 (14.7%)  | 12 (10.5%)   |
| 창의적 사고개발과 상상력 확장 | 20 (25.0%) | 7 (20.6%)  | 27 (23.7%)   |
|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움직임   | 47 (58.8%) | 19 (55.9%) | 66 (57.9%)   |
| 리더십 및 타인에 대한 배려  | 2 (2.5%)   | 1 (2.9%)   | 3 (2.6%)     |
| 정확한 움직임 습득 및 수행  | 0 (0.0%)   | 1 (2.9%)   | 1 (0.9%)     |
| 기타               | 4 (5.0%)   | 1 (2.9%)   | 5 (4.4%)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 (3) 무용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

표 8. 무용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무용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 37 (43.3%) | 18 (52.9%) | 55 (48.2%)   |
| 학습자에 대한 다각적 이해      | 29 (36.3%) | 10 (29.4%) | 39 (34.2%)   |
| 수업운영 및 평가 능력        | 3 (3.8%)   | 1 (2.9%)   | 4 (3.5%)     |
| 교구제작 및 교육 매체 활용 능력  | 1 (1.3%)   | 0 (0.0%)   | 1 (0.9%)     |
| 학생지도능력(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 8 (10.0%)  | 5 (14.7%)  | 13 (11.4%)   |
| 연구수행능력(교육과정 및 정책개발) | 2 (2.5%)   | 0 (0.0%)   | 2 (1.8%)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무용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에 대한 순위로는 ‘무용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46.3%)(52.9%), ‘학습자에 대한 다각적 이해’ (36.3%)(29.4%), ‘학생지도능력(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10.0%)(14.7%), ‘연구능력’ (2.5%)(0%), ‘교구제작 및 교육매체 활용능력’ (1.2%)(0%)이었다. 초등 및 중등강사의 경우 무용교사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무용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상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4) 미래 무용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미래 무용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에 대한 순위는 '창의적인 교육설계 및 운영, 평가' (37.5%)(32.4%),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무용지도법' (32.5%)(32.4%), '학습자 이해,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 (17.5%)(23.5%) 등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초등강사의 경우 창의적인 교육설계에 대해 중등강사보다 5.1% 높고, 중등강사의 경우 학습자 이해/커뮤니케이션 및 상담에 대해서는 6% 응답률이 높았지만 인식 상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9. 미래 무용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학습자 이해, 커뮤니케이션     | 14 (17.5%) | 8 (23.5%)  | 22 (19.3%)   |
| 문화정책 및 예술교육 기획     | 3 (3.8%)   | 2 (5.9%)   | 5 (4.4%)     |
| 창의적인 교육설계 및 운영, 평가 | 30 (37.5%) | 11 (32.4%) | 41 (36.0%)   |
| 무용장르별 실기 및 이론      | 1 (1.3%)   | 1 (2.9%)   | 2 (1.8%)     |
|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무용지도법  | 26 (32.5%) | 11 (32.4%) | 37 (32.5%)   |
| 교구제작 및 교보재 개발      | 5 (6.3%)   | 1 (2.9%)   | 6 (5.3%)     |
| 기타                 | 1 (1.3%)   | 0 (.0%)    | 1 (.9%)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 3) 교육운영

#### (1) 교안 활용

표 10. 교안 활용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교안에 제시된대로 운영하려 한다.                | 14 (17.5%) | 5 (14.7%)  | 19 (16.7%)   |
| 교안을 토대로 다른 교재내용 및 활동을 덧붙인다.       | 63 (78.8%) | 28 (82.4%) | 91 (79.8%)   |
| 교안은 참고만하고, 다른 교재내용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 2 (1.3%)   | 1 (2.9%)   | 3 (2.6%)     |
| 기타                                | 1 (1.3%)   | 0 (.0%)    | 1 (.9%)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교안 활용에 대한 초등강사와 중등강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강사 모두 차시 진행 시 1순위로 ‘교안을 토대로 다른 교재 내용 및 활동을 덧붙인다’ (78.8%)(82.4%)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교안에 제시된 대로 운영하려 한다’ (17.5%)(16.7%), ‘교안은 참고만하고 다른 교재 내용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2.5%)(2.9%) 순이었다. 중등강사가 ‘교안 외 활동에 덧붙인다’에 3.6%로 높은 비율을 보이 있으나 인식 상에 경향은 비슷했다.

## (2) 주어진 수업 시간

표 11. 주어진 수업시간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매우 적절하다 | 6 (7.5%)   | 1 (2.9%)   | 7 (6.1%)     |
| 적절하다    | 38 (47.5%) | 11 (32.4%) | 49 (43.0%)   |
| 보통이다    | 18 (22.5%) | 10 (29.4%) | 28 (24.6%)   |
| 다소 부족하다 | 15 (18.8%) | 12 (35.3%) | 27 (23.7%)   |
| 매우 부족하다 | 3 (3.8%)   | 0 (0%)     | 3 (2.6%)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차시 운영 시 주어진 수업시간에 대해 초등강사의 경우 ‘적절하다’(47.5%), ‘보통이다’(22.5%), ‘다소 부족하다’(18.8%), ‘매우 적절하다’(7.5%) 순인 반면 중등강사의 경우 ‘다소 부족하다’(35.3%), ‘적절하다’(32.4%), ‘보통이다’(29.4%), ‘매우 적절하다’(2.9%) 순이었다. 초등강사는 중등강사에 비해 주어진 수업시간이 ‘적절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5.1% 더 높은 반면 중등강사는 보통이다 6.9%, 다소 부족하다 16.5%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므로 초등강사보다 중등강사가 차시를 운영하는데 주어진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강사의 경우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비율이 49.1%인 반면 ‘다소 부족하다’, ‘부족하다’의 비율도 26.3% 이므로 1차시를 운영하는데 주어진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 (3)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12.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반구성원과 분위기      | 27 (33.8%) | 17 (50.0%) | 44 (38.6%)   |
| 수업내용 및 활동      | 41 (51.3%) | 13 (38.2%) | 54 (47.4%)   |
| 학교 선생님의 관심, 협조 | 6 (7.5%)   | 0 (0.0%)   | 6 (5.3%)     |
| 교육 장소 및 환경     | 4 (5.0%)   | 1 (2.9%)   | 5 (4.4%)     |
| 교육의 자율권 여부     | 1 (1.3%)   | 3 (8.8%)   | 4 (3.5%)     |
| 기타             | 1 (1.3%)   | 0 (0.0%)   | 1 (0.9%)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초등강사의 경우는 ‘수업내용 및 활동’(51.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후로는 ‘반 구성원과 분위기’(33.8%), ‘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7.5%), ‘교육장소 및 환경’(5.0%) 순이었다. 중등강사의 경우 1순위로는 초등강사와 달리 ‘반 구성원과 분위기’(50.0%)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후로는 ‘수업내용 및 활동’(38.2%), ‘수업구성 및 실행 등 강사의 교육 자율권 여부’(8.8%) 순이었다.

성공적인 무용수업의 요인으로서 초등강사는 중등강사에 비해 ‘수업내용 및 활동’의 인식비율이 13.1% 더 높았고, 중등강사는 ‘반 구성원과 분위기’가 16.2% 더 높았다. 초등강사는 학교선생님의 관심 및 협조를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등교사는 0%를 차지해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등강사는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업구성 및 실행에 있어 강사의 자율권(8.8%)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무용수업 중 대표적인 문제행동

표 13. 무용수업 중 대표적인 문제행동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잡담 등 소란과 산만함      | 35 (43.8%) | 12 (35.3%) | 47 (41.2%)   |
| 지시 및 물음에 소극적, 무반응 | 16 (20.0%) | 2 (5.9%)   | 18 (15.8%)   |
| 부정적 표현(왜 해요? 등)   | 22 (27.5%) | 16 (47.1%) | 38 (33.3%)   |
| 수업규칙 미 준수         | 3 (3.8%)   | 0 (0.0%)   | 3 (2.6%)     |
| 거친 언행             | 1 (1.3%)   | 2 (5.9%)   | 3 (2.6%)     |
| 학생 간 몸싸움          | 0 (0.0%)   | 1 (2.9%)   | 1 (0.9%)     |
| 기타                | (3.8%)     | 1 (2.9%)   | 4 (3.5%)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무용수업 중 대표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순위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잡담 등으로 인한 소란과 산만함’(43.8%)에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후로는 ‘수업참여에 대한 부정적 표현(왜 해요? 등)’(27.5%), ‘지시 및 물음에 대한 소극적 표현과 무반응’(20.0%), ‘수업규칙 미준수’(3.8%), ‘기타’(3.8%) 순이었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1순위로 ‘수업참여에 대한 부정적 표현(왜 해요? 등)’(47.1%)에 응답률이 높았고, 이후로는 ‘잡담 등으로 인한 소란과 산만함’(35.3%), ‘지시 및 물음에 소극적 표현과 무반응’(5.9%), ‘거친 언행’(5.9%)순이었다. 초등강사는 중등강사에 비해 무용수업 중 문제행동으로서 잡담 등 소란과 산만함, 지시 및 물음에 소극적 혹은 무반응을 중등강사는 수업참여에 대한 부정적 표현(왜 해요?)과 잡담 등 소란과 산만함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표 14.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응시하기                 | 25 (16.8%) | 5 (7.8%)   | 30 (14.1%)   |
| 수업규율 상기              | 34 (22.8%) | 19 (29.7%) | 53 (24.9%)   |
| 무용을 해야 할 이유 설명       | 24 (16.1%) | 13 (20.3%) | 37 (17.4%)   |
| 수업서out, 학교 선생님 도움 요청 | 16 (10.7%) | 4 (6.3%)   | 20 (9.4%)    |
| 정해진 장소에 서거나 앉아 있기    | 13 (8.7%)  | 1 (1.6%)   | 14 (6.6%)    |
| 학생에 학급 관리의 책임감 부여    | 13 (8.7%)  | 6 (9.4%)   | 19 (8.9%)    |
| 부여된 점수나 기회 빼앗기       | 2 (1.3%)   | 3 (4.7%)   | 5 (2.3%)     |
| 꾸짖기, 체벌 행하기          | 4 (2.7%)   | 2 (3.1%)   | 6 (2.8%)     |
| 유머로 가볍게 넘기기          | 14 (9.4%)  | 11 (17.2%) | 25 (11.7%)   |
| 인내심 갖고 기다리기          | 4 (2.7%)   | 0 (0.0%)   | 4 (1.9%)     |
| 전체-명(%)              | 80(100.0%) | 64(100.0%) | 213 (100.0%) |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거나 유용하다 생각되는 방법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수업규율 상기’(22.8%), ‘응시하기’(16.8%), ‘무용을 해야 할 이유 설명’(16.1%), ‘수업에서 out, 담임·체육부장 등 학교선생님 도움 요청’(10.7%), ‘유머로 가볍게 넘기기’(9.4%), ‘정해진 장소에 서 있거나 앉아 있기’(8.7%), ‘특정 학생에게 학급관리의 책임감 부여’(8.7%)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강사의 경우 역시 1순위는 ‘수업 규율 상기’(29.7%)로서 초등강사 보다 6.9% 응답률이 높았다. 이후 순위로는 ‘무용을 해야 할 이유 설명’(20.3%), ‘유머로 가볍게 넘기기’(17.2%), ‘특정학생에게 학급 관리의 책임감 부여’(9.4%), 수업에서 out, 학교 선생님께 도움 요청’(6.3%), ‘부여된 점수나 기회 빼앗기’(4.7%) 순이었다.

초중등강사 모두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규율 상기를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등이 초등보다 6.9%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후 순위를 살펴보면 초등강사의 경우 중등강사보다 응시하기 9%, 수업에서 out, 학교선생님에게 도움요청에 4.4%, 정해진 장소에 서 있거나 앉아 있게 하기 7.1% 높은 반면 중등강사의 경우는 무용을 해야 할 이유 설명에 4.2%, 유머로 가볍게 넘기기는 7.8% 응답률이 더 높았다. 또한 중등강사는 특정학생에게 학급관리의 책임감 부여에 0.7% 응답률이 더 높아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법

표 15.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법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대화, 상호소통의 기회            | 13 (8.6%)   | 7 (10.4%)  | 20 (9.1%)    |
| 활발한 움직임 활동              | 22 (14.5%)  | 3 (4.5%)   | 25 (11.4%)   |
| 칭찬과 격려                  | 45 (29.6%)  | 24 (35.8%) | 69 (31.5%)   |
| 연습 기회 제공                | 11 (7.2%)   | 1 (1.5%)   | 12 (5.5%)    |
| 건전한 경쟁(보상, 인센티브부여)      | 11 (7.2%)   | 9 (13.4%)  | 20 (9.1%)    |
| 선택 기회(자료, 소품 등)         | 8 (5.3%)    | 4 (6.0%)   | 12 (5.5%)    |
| 무용수업의 필요성 언급            | 3 (2.0%)    | 3 (4.5%)   | 6 (2.7%)     |
| 과제수행 후 자유 시간            | 7 (4.6%)    | 8 (11.9%)  | 15 (6.8%)    |
| 수행점수와 연관 강조             | 3 (2.0%)    | 4 (6.0%)   | 7 (3.2%)     |
| 다양하게 질문하기               | 9 (5.9%)    | 1 (1.5%)   | 10 (4.6%)    |
| 도전의식, 성취감 등<br>내적 가치 유도 | 19 (12.5%)  | 3 (4.5%)   | 22 (10.0%)   |
| 기타                      | 1 (0.7%)    | 0 (0.0%)   | 1 (0.5%)     |
| 전체-명(%)                 | 152(100.0%) | 67(100.0%) | 219 (100.0%) |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거나 효과적인 것에 대해 초등강사는 1순위로 ‘칭찬과 격려’(29.6%)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후로는 ‘활발한 움직임 활동’(14.5%), ‘도전의식과 성취감 등 내적가치 유도’(12.5%),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의 기회’(8.6%), ‘배운 내용의 응용 및 연습기회 제공’(7.2%), ‘건전한 경쟁(권한 및 보상, 인센티브 부여)’(7.2%) 순이었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1순위 역시 ‘칭찬과 격려’(35.8%)로서 초등강사보다 8.9% 응답률이 높았다.

이후로는 ‘건전한 경쟁’(권한 및 보상, 인센티브 부여)13.4%, ‘과제 수행 후 자유시간 허용’(11.9%),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의 기회’(10.4%), ‘학생 선택의 기회 제공’(시각자료, 소품 등 6.0%), ‘수행점수와 연관 강조’(6.0%)순이었다.

초등강사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동기유발 방법으로 중등강사보다 칭찬과 격려 외에 활발한 움직임 활동에 10%, 도전의식과 성취감 등 내적가치 유도에 7%, 배운 내용의 연습기회 제공에 5.7% 응답률이 더 높은 반면, 중등강사는 칭찬과 격려 외에 건전한 경쟁(권한 및 보상, 인센티브 부여)에 6.2%, 과제 수행 후 자유시간 허용에 7.3%, 수행점수와 연관 강조에 4% 응답률이 더 높았다. 초등강사는 동기유발 방법으로서 활발한 움직임 활동과 연습의 기회를 통한 도전의식과 성취감 등 내적가치를 유도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반면 중등강사는 자유 시간 허용, 수행점수와 연관 등 외적 보상 등을 통한 동기유발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7) 수업 중 질문의 목적

표 16. 수업 중 질문의 목적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흥미유발    | 63 (45.7%) | 26 (44.1%) | 89 (45.2%)   |
| 진단과 점검  | 26 (18.8%) | 16 (27.1%) | 42 (21.3%)   |
| 정보의 회상  | 5 (3.6%)   | 3 (5.1%)   | 8 (4.1%)     |
| 사고활동 독려 | 44 (31.9%) | 14 (23.7%) | 58 (29.4%)   |
| 전체-명(%) | 80(100.0%) | 64(100.0%) | 213 (100.0%) |

수업 중 질문의 목적에 대한 초등과 중등강사의 인식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초등강사의 경우 ‘흥미유발’(45.7%), ‘사고활동 독려’(31.9%), ‘진단과 점검’(18.8%), ‘정보와 회상’(3.6%) 순이다. 중등강사의 경우 ‘흥미유발’(44.1%) 외에 ‘진단과 점

검'이 8.3% 더 높은 27.1%를 차지했으며 반면 '사고활동 독려'는 8.2% 낮은 23.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상을 통해 초등강사는 수업중 질문의 목적을 흥미유발 및 사고활동 독려에 비중을 두는 반면 중등강사는 흥미유발 및 진단과 점검에 비중을 둔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 (8) 피드백 제공 시 주안점

표 17. 피드백 제공 시 주안점

| 피드백 제공 시 주안점                    |            |            |              |
|---------------------------------|------------|------------|--------------|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초등         | 중등         |              |
| 칭찬할 부분을 많이 찾아 칭찬한다.             | 48 (60.0%) | 18 (52.9%) | 66 57.9%     |
| 교정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둔다.         | 0 (.0%)    | 4 (11.8%)  | 4 (3.5%)     |
| 설명, 묘사로 학생들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 30 (37.5%) | 9 (26.5%)  | 39 (34.2%)   |
| 그릇된 행동과 잘못을 알도록 한다              | 1 (1.3%)   | 3 (8.8%)   | 4 (3.5%)     |
| 기타                              | 1 (1.3%)   | 0 (.0%)    | 1 (.9%)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피드백 제공 시 주안점에 대한 초등강사와 중등강사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강사의 경우 '칭찬할 부분을 많이 칭찬한다'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이상(60.0%)을 차지하였으며, '설명 및 묘사로 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37.5%), '그릇된 행동과 잘못을 알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1.3%)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칭찬할 부분을 많이 찾아 칭찬한다'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응답률이 초등보다 7.1% 낮았다. 그 다음 순위로 '설명 및 묘사를 통해 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의 응답(26.5%)이 높았지만 역시 초등강사보다 응답률이 11% 낮았고 초등강사와 달리 교정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둔다(11.8%), 그릇된 행동과 잘못을 알도록 한다(8.8%)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9) 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표 18. 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             |              |
|----------------------|--------------|-------------|--------------|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초등           | 중등          |              |
| 목소리 크게 작게            | 16 (10.6%)   | 9 (14.5%)   | 25 (11.7%)   |
| 구호 외치기               | 16 (10.6%)   | 3 (4.8%)    | 19 (8.9%)    |
| 학습내용 시각화(자료제시)       | 8 (5.3%)     | 4 (6.5%)    | 12 (5.6%)    |
| 침묵                   | 8 (5.3%)     | 5 (8.1%)    | 13 (6.1%)    |
| 박수 치기                | 7 (4.6%)     | 8 (12.9%)   | 15 (7.0%)    |
| 약속된 수신호 사용           | 34 (22.5%)   | 7 (11.3%)   | 41 (19.2%)   |
| '조용히', '집중' 등 직접 말하기 | 3 (2.0%)     | 3 (4.8%)    | 6 (2.8%)     |
| 노래와 율동, 게임           | 9 (6.0%)     | 2 (3.2%)    | 11 (5.2%)    |
| 시작과 멈춤시 도구 사용        | 19 (12.6%)   | 9 (14.5%)   | 28 (13.1%)   |
| 대형의 다양화              | 6 (4.0%)     | 0 (0.0%)    | 6 (2.8%)     |
| 학생이름 외우기             | 16 (10.6%)   | 8 (12.9%)   | 24 (11.3%)   |
| 접촉을 통한 움직임 교정        | 8 (5.3%)     | 1 (1.6%)    | 9 (4.2%)     |
| 특정 학생에 관한 부여         | 0 (0.0%)     | 3 (4.8%)    | 3 (1.4%)     |
| 기타                   | 1 (0.7%)     | 0 (0.0%)    | 1 (0.5%)     |
| 전체-명(%)              | 152 (100.0%) | 62 (100.0%) | 213 (100.0%) |

수업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약속된 수신호 사용'의 응답(22.5%)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는 '시작과 멈춤 신호 시 도구 사용' (12.6%), '목소리 크게·작게 / 반복해서 강조' (10.6%), '구호 외치기' (10.6%), '학생이름 외우기' (10.6%), '노래와 율동/게임' (6.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중등강사의 경우 1순위는 '목소리 크게·작게 / 반복해서 강조' (14.5%), '시작과 멈춤 신호 시 도구 사용' (14.5%)의 응답률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이후 순위로는 박수치기(12.9%), 학생이름 외우기(12.9%), 약속된 수신호 사용 (11.3%), 침묵(8.1%) 순이었다.

#### 4) 개선안

##### (1) 교육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예술강사로서 활동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교과전담제 도입, 안정된 신분 및 재량권 확보’의 응답률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순위로는 ‘기본교과로 무용수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18.8%), ‘예술강사 및 학생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 (6.3%) 순이었다.

표 19. 교육현장 개선사항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 초등         | 중등         |              |
| 기본교과로 무용수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15 (18.8%) | 5 (14.7%)  | 20 (17.5%)   |
| 교과전담제 도입, 안정된 신분 및 재량권 확보     | 52 (65.0%) | 20 (58.8%) | 72 (63.2%)   |
| 예비교사 교육에서의 전문성 강화             | 1 (1.3%)   | 1 (2.9%)   | 2 (1.8%)     |
| 우수강사제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 경쟁력 강화     | 2 (2.5%)   | 0 (.0%)    | 2 (1.8%)     |
| 예술강사 및 학생요구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 5 (6.3%)   | 6 (17.6%)  | 11 (9.6%)    |
| 지역문화재단 등 주관기관 담당자와의 소통 원활화    | 3 (3.8%)   | 1 (2.9%)   | 4 (3.5%)     |
| 기타                            | 2 (2.5%)   | 1 (2.9%)   | 3 (2.6%)     |
| 전체-명(%)                       | 80(100.0%) | 34(100.0%) | 114 (100.0%) |

중등강사의 경우 역시 ‘교과전담제 도입, 안정된 신분 및 재량권 확보’의 응답률(58.8%)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순위로 초등강사와 달리 ‘예술강사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 (17.6%), ‘기본교과로 무용수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14.7%)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초등강사가 중등강사보다 교육현장에서 변화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강사의 안정된 신분 및 재량권 확보와 무용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응답률이 다소 높고 반면 중등강사는 초등강사에 비해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 그 외 문항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2) 무용수업 수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표 20. 무용수업 수행을 위한 개선사항

| 무용수업 수행을 위한 개선사항       |              |             |              |
|------------------------|--------------|-------------|--------------|
| 설문내용                   | 교급           |             | 전체-명(%)      |
|                        | 초등           | 중등          |              |
| 수업에 적절한 공간             | 26 (18.3%)   | 20 (32.3%)  | 46 (22.5%)   |
| 교보재, 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      | 31 (21.8%)   | 17 (27.4%)  | 48 (23.5%)   |
| 수업교구,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 24 (16.9%)   | 8 (12.9%)   | 32 (15.7%)   |
| 수업 외 공연관람, 등 교육 경험 확대  | 17 (12.0%)   | 4 (6.5%)    | 21 (10.3%)   |
| 진학을 위한 필수, 선택교과로 채택    | 6 (4.2%)     | 1 (1.6%)    | 7 (3.4%)     |
| 학교담당자와 원활한 파트너십을 위한 지원 | 13 (9.2%)    | 2 (3.2%)    | 15 (7.4%)    |
| 예술강사 간 소통 및 의견공유 지원    | 12 (8.5%)    | 6 (9.7%)    | 18 (8.8%)    |
| 수업준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    | 13 (9.2%)    | 2 (3.2%)    | 15 (7.4%)    |
| 기타                     | 0 (0.0%)     | 2 (3.2%)    | 2 (1.0%)     |
| 전체-명(%)                | 142 (100.0%) | 62 (100.0%) | 204 (100.0%) |

무용수업을 수행하는데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초등강사의 경우 ‘교보재·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21.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수업에 적절한 공간’(18.3%),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16.9%), ‘수업 외 공연관람 등 교육경험 확대’(12.0%), ‘학교 담당자와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지원’(9.2%), ‘수업준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9.2%) 순이었다. 중등강사의 경우 1 순위는 ‘수업에 적절한 공간’의 응답이 32.3%로 응답률이 초등보다 14% 더 높았다. 이후 순위로는 ‘교보재·교안 개발 및 다양화’(27.4%),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12.9%), ‘예술강사 간 소통 및 의견공유를 위한 기회지원’(9.7%), ‘수업 외 공연관람 등 교육경험 확대’(6.5%) 순이었다.

초등강사들은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4%, 수업 외 교육경험 확대 5.5%, 학교 담당자와의 원활한 파트너십 6%, 수업준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제공 6% 응답률이 더 높았다. 반면 중등강사들은 수업 공간 외에 교보재 및 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에 대해서 5.6% 응답률이 높았다.

초·중등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보재·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 수업에 적절한 공간,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강사에 비해 중등강사가 무용수업을 위한 수업공간 및 교보재·교안이 개선되어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강사는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학교 담당자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지원, 수업준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 등에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논의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무용을 지도하는 무용강사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효율적인 무용지도를 위해 교육현장, 교사관, 수업운영, 개선안에 대한 초등 및 중등 무용강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현장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초·중등강사 모두 ‘신분 및 지위의 막연함과 불안정’의 응답률(41.5, 62.5%)이 가장 높았으나 중등강사보다는 초등강사가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초등강사의 경우 이후 순위로는 ‘예술 강사에 대한 인식 및 배려 부족’, ‘학교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에 응답률이 높았으나 중등강사는 ‘예술 강사에 대한 인식 및 배려 부족’ 외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영향력의 미진함’, ‘지역별 수준차이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인식상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현장에서 무용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초·중등강사 모두 ‘수수업에 부적절한 공간’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후 순위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교구 및 자료·기자재 미흡’, ‘교육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못한 시수배정’, ‘학교 발표회 및 행사 등 수업 외 업무부과’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충분치 못한 시수 배정’, ‘교육대상의 요구 및 수준을 반영치 못한 교안 내용’ 등의 순으로 인식 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교육현장 인식과 관련해 ‘1년 계약직에 따른 신분 및 지위상의 불안감’,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 및 배려 부족’, ‘적절치 못한 수업 공간’, ‘교구 및 기자재 부족’, ‘충분치 못한 시수배정’ 등에 문제는 황혜원(2008), 이병준(2014), 탁지현(2014) 등의 연구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문제들이다. 무용강사들

이 예술강사제도를 하나의 직업으로서 의식하고 직무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제도 및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은 직무에 대한 긍지와 만족도를 높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무용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으로는 ‘예술만나기(통합교과)’, ‘무용탐구(이론)’, ‘창작무용’, ‘한국민속무용’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지도 시 특정 활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로 초등강사는 ‘관련활동의 교재 및 영상 등 참고자료 부족’을 반면 중등강사는 ‘무용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부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중등강사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선행경험 및 흥미부족 뿐 아니라 강사 스스로가 대학교육 내에 관련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경험이 미흡했음을 문제로 지적해 예비교사교육에서 통합교과 및 창작무용 등 관련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 2) 교사관

이상적인 무용수업에 대해 초등 및 중등 강사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 및 창의성을 표현하고 발현할 수 있는 수업’에 응답비율(52.5%, 47.1%)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는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하는 놀이 중심의 수업’(22.5%, 32.4%), ‘학생들과의 의견교환 및 상호작용이 잘 되는 수업’(16.3%, 5.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수업 중 강조하는 부분은 초중등강사 모두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움직임’(58.8%, 55.9%)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세부사항에서 초등강사는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움직임’, ‘창의적인 사고개발과 상상력 확장’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중등강사는 이외 ‘수업 중 규칙과 규율 준수’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용강사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1순위로는 ‘무용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46.3%, 52.9%)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강사 심층면담 및 자문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무용강사들이 무용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그 전문성을 통해 타교과(체육 및 음악 등)에서 무용을 지도하는 강사 및 교사들과 비교해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미래 무용교사로서 갖추어야 지식은 ‘창의적인 교육설계 및 운영, 평가’ (37.5%, 32.4%),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무용지도법’ (32.5%, 32.4%), ‘학습자 이해 ·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 (17.5%, 23.5%) 등이다.

무용강사들이 지도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시 할 뿐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설계 및 운영, 대상 및 내용에 따른 지도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므로 이를 보완할 기회가 요구된다. 자문위원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용강사로 선발되는 전공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자로 훈련받을 기회가 적어 기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제 요구사항을 충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창의적인 교육설계 및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전략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수업맥락과 상황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Rink, J.E, 1997:18, 최경희, 2007a:186).

### 3) 교육운영

교안 활용에 대해 초등 및 중등강사는 ‘교안을 토대로 다른 교재내용 및 활동을 덧붙인다’ (78.8%, 82.4%)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차시운영과 관련해 초등강사는 중등강사에 비해 주어진 수업시간에 ‘적절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5.1% 더 높은 반면 중등강사는 ‘보통이다’ 6.9%, ‘다소 부족하다’ 16.5%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므로 초등강사보다 중등강사가 차시를 운영하는데 주어진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관찰 분석결과 무용강사가 수업 전개 시 인원점검 · 정돈 및 정렬 · 규칙 준수 등 수업관리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 학생들의 실제 활동이 줄어들고, 수업 전개 시 특정 활동에 비중을 두는 경우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미흡하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무용강사는 계획된 수업내용 및 활동 전개를 위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에 배당된 시수는 충분치 못하나 정해진 일련의 연간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량의 차시 배정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초등강사는 ‘수업내용 및 활동’ (51.3%)의 응답률이 높았고, 반면 중등강사는 ‘반 구성원과 분위기’ (50%)에 응답률이 높았다. 초등강사는 ‘학교선생님의 관심 및 협조’ 를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등강사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등강사는 ‘교육구성 및 실행에 있어 강사의 자율권 여부’를 성공적인 무용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수업 중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는 ‘잡담 등 소란과 산만함’, ‘부정적 표현(왜 해요?)’, ‘지시 및 물음에 소극적 무반응’, ‘수업규칙 미준수’, ‘거친 언행’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 및 중등강사 모두 ‘수업규율 상기’(22.8%, 29.7%)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순위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응시하기’, ‘수업에서 out·학교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하기’, ‘특정학생에 학급관리의 책임감 부여하기’, ‘정해진 장소에 서있거나 앉아 있기’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등강사의 경우는 ‘무용을 해야 할 이유 설명하기’, ‘유머로 가볍게 넘기기’, ‘특정학생에게 학급관리의 책임감 부여하기’, ‘응시하기’ 순으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법으로는 초등 및 중등강사 경우 ‘칭찬과 격려’(29.6%, 35.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순위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활발한 움직임 활동’, ‘도전의식과 성취감 등 내적가치 유도’, ‘대화를 통한 상호 소통의 기회’, ‘배운 내용의 응용 및 연습기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칭찬과 격려’ 외에 ‘건전한 경쟁(권한 및 보상, 인센티브 부여)’, ‘과제 수행 후 자유시간 허용’, ‘대화를 통한 상호소통의 기회’, ‘학생 선택의 기회 제공(시각자료, 소품 등)’, ‘수행점수와 연관 강조’ 등의 방법을 제시해 문제행동 관리와 더불어 동기유발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형성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이와같은 긍정적 경험의 창출은 적극적 참여정도를 결정하는 동기유발 수준에 영향을 받으므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것은 교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유상석 외 1인, 2002: 136). 학습자들은 도전적이며 즐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으므로 교사는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Mainwaring, L.M, 2010: 17).

한편 피드백 제공 시 초등강사는 칭찬과 격려 등 가치를 인정하고,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이나 부분에 대한 설명에 피드백의 초점을 두는 반면 중등강사는 칭찬과 격려 외에 교정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과 잘못을 알도록 하는데 피드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드백은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습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피드백은 학습자들의 과제수행에 대한 정보와 판단, 교정 사항 등을 나타

낸다(Gibbons, E, 2004:38). 학생의 성취 혹은 행동에서 부적절하거나 틀린 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적 피드백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거나 그 비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수업 참여태도의 상승정도가 미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영, 2010: 56).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이 되려면 학생의 학습 또는 성취에서 적절하거나 옳은 점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긍정 및 인정의 피드백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신동로 외 1인, 2001: 324).

수업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약속된 수신호 사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 ‘시작과 멈춤 신호 시 도구사용’, ‘목소리 크게 · 작게 / 반복해서 강조’, ‘구호 외치기’, ‘학생이름 외우기’, ‘노래와 율동/게임’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중등강사의 경우는 ‘목소리 크게 · 작게 / 반복해서 강조’, ‘시작과 멈춤 신호 시 도구사용’의 응답률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이후 순위로는 박수치기, 학생이름 외우기, 약속된 수신호 사용, 침묵 순이었다.

수업관찰 분석결과 무용강사들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수업에서 주의집중을 위해 정해진 수신호 및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조용히 해’, ‘떠들지 마’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 수업의 흐름이 중단되거나 강사의 목소리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은 설정된 학습목표 달성과 계획된 교육활동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의 흐름과 전개를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주의집중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인 과제참여도를 높일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개선안

예술강사로서 활동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교과전담제 도입 · 안정된 신분 및 재량권 확보(65%, 58.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순위로는 기본교과로서 무용수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18.8%, 14.7%), 예술강사 및 학생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6.3%, 17.6%) 순이었다. 무용수업을 수행하는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교보재 · 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21.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등강사의 경우는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32.3%)의 응답률이 높았다. 초 · 중등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교보재 · 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강사에 비해 중등강사가 무용수업을 위한 수업 공간, 교안 및 교보재가 개선되어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강사는 수업교구 및 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학교 담당자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지원, 수업준비 및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 등에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현장의 인식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안으로 제시된 요구사항의 관련성이 높아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요구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무용을 지도하는 무용강사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 18명, 중등 15명의 수업관찰 및 심층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현장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효율적인 무용지도를 위한 교육현장, 교사관, 수업운영, 개선안에 대한 초등 및 중등 무용강사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초중등강사 모두 '신분 및 지위의 막연함과 불안정'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무용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초·중등강사 모두 '수업에 부적절한 공간'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밖에 '교구 및 자료·기자재 미흡', '교육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못한 시수배정', '학교 발표회 및 행사 등 수업 외 업무부과', '교육대상의 요구 및 수준을 반영치 못한 교안내용' 등을 들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활동으로는 '예술만나기(통합교과)', '무용탐구(이론)', '창작무용' 등이었다.

무용수업 및 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교사관과 관련해 이상적인 무용수업으로는 초등 및 중등 강사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 및 창의성을 표현하고 발현할 수 있는 수업'에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업 중 강조하는 부분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움직임', '창의적인 사고개발과 상상력 확장'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중등강사는 초등강사와 비슷한 인식

의 경향을 보이거나 앞에 두 항목 외에 ‘수업 중 규칙과 규율 준수’에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용강사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는 ‘무용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무용교사로서 갖추어야 지식은 ‘창의적인 교육설계 및 운영, 평가’,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무용지도법’, ‘학습자이해·커뮤니케이션 및 상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실제적인 교육운영 측면에서 차시운영과 관련해 초등강사보다 중등강사가 차시를 운영하는데 주어진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수업 중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는 ‘잡담 등 소란과 산만함’, ‘부정적 표현(왜 해요?)’, ‘지시 및 물음에 소극적 무반응’, ‘수업규칙 미준수’, ‘거친 언행’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 및 중등강사 모두 ‘수업규율 상기’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법으로는 초등 및 중등강사 경우 ‘칭찬과 격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초등강사의 경우 ‘활발한 움직임 활동’, ‘도전의식과 성취감 등 무용에 대한 내적 가치를 형성토록 하는 방법을 중요시 하는 반면 중등강사의 경우는 ‘칭찬과 격려’ 외에 ‘건전한 경쟁(권한 및 보상, 인센티브 부여)’, ‘과제 수행 후 자유시간 허용’ 등 외적 보상 방법을 제시해 문제행동 관리와 더불어 동기유발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피드백 제공 시 초등강사는 칭찬과 격려 등 가치를 인정하고,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이나 부분에 대한 설명의 피드백에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등강사는 칭찬과 격려 외에 교정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과 잘못을 알도록 하는데 피드백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술강사로서 활동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교과전담제 도입·안정된 신분 및 재량권 확보’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무용수업을 수행하는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초등강사의 경우 ‘교보재·교안의 개발 및 다양화’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등강사의 경우는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무용강사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 제도 및 환경 측면에서

첫째, 예술강사로서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신분 및 지위의 불안정함'의 비율이 높고 개선안으로서 역시 '교과전담제 도입 등 신분 및 지위의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무용강사들의 심층면담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예술강사들의 평가는 10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평가항목의 잦은 변화로 인해 신분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문위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강사들의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지속을 위해 평가는 필요할 수 있으나, 무용강사들이 교육자로서 자존감이나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교과전담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직업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무용수업을 행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수업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의 비율이 높았고, 개선사항으로서 역시 '수업하기에 적절한 공간'의 응답 비율이 높아 학교당국, 교육청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주관기관 등은 이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용강사들은 여러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수업장소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개선은 무용강사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지도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용수업을 행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수업을 위한 공간 외에 참고자료가 부족하다 인식하는 경향이 커 교안 뿐 아니라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교과 영역들에서는 교과서 외에 교사용 지도서, 참고서,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들이 개발된 것과 같이 무용강사들에게 제공된 교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보재 등이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무용강사와 학교와의 공조를 위해 각각의 역할 및 업무, 구체적인 공조사항 등을 규명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강사는 통합교과 지도 시 통합교과에 대한 학교의

이해가 미흡할 뿐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 및 기자재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수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학교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을 언급한 반면 자문위원들의 경우 수업에 공조사항들은 교육청 공문에 게시되어 있고, 수업환경을 만드는 것은 강사의 몫으로 여기고 있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해 학교 관계자 및 예술강사들에게 공조 가능한 혹은 공조해야 할 내역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초등강사들의 경우 교과지도 외 행사 등의 업무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무용강사의 업무수행 뿐 아니라 학교당국 및 담당자의 협조를 감찰 할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전교육기관에서 효율적인 무용지도를 위한 예비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용강사가 된 후 연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나 무용강사들의 교수능력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 교과 교육학(무용 교육론, 대상 및 내용에 따른 무용지도법, 통합교육, 창의적 제작 등) 등의 교육적 배경지식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도 시 어려워하는 활동으로서 ‘통합교과’ 및 ‘무용탐구(이론)’, ‘창작무용’ 교과목의 비율이 높았고, 미래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창의적 교육설계 및 운영’의 비율이 높아 직전교육에서도 관련교과를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예비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무용강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안에 대해 대상의 요구 및 수준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교안에 대한 강사들의 이해를 새롭게 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거나 자문위원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내용의 수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안의 이해를 도모 할 연수 기회는 기본적으로 교안 및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지도할 능력을 배향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강사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필요한 활동을 덧붙인다. 더불어 무용강사 간 소통 및 의견공유의 기회를 위해 지역 워크숍 및 연구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년도별 평가를 통한 차시 배분이라는 경쟁체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교육운영 측면에서

일곱째, 주어진 수업시간과 관련해 ‘다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응답비율이 27%를 차지해 강사 스스로 효과적인 수업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서는 인원점검, 정리 및 정렬, 주의집중 등 수업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계획한 활동을 완수하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과제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에 배당된 시수는 충분치 못하나 정해진 일련의 연간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량의 차시 배정 및 교육 구성에 있어 강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덟째, 효율적인 수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전략 중 동기유발 방법에서 초등강사는 학습자체에 의미를 갖는 내적 가치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중등강사는 건전한 경쟁, 과제 수행 후 자유시간 허용, 수행점수와 연관 등을 효과적인 동기유발 방안으로 인식하므로 차이를 보였다. 외재적 보상을 통한 동기유발은 그 효과가 단기적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이 무용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여 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있는 방안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과제 수행 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경우 공차기, 잡담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무용강사는 수업상황에 따라 학습자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부적절한 행동 및 틀린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적 피드백을 빈번히 사용할 경우 수업태도에 상승정도가 반감되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취에서 옳은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정 및 긍정의 피드백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째, 무용강사들은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수업집중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주의집중은 단기 학습의 목표 달성 및 계획한 수업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업기술이다. 유연한 수업전개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주의집중 방법을 강구하고 사용빈도 및 시기를 고려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용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강사들의 직업정체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교육을 실행하는데 유효적절한 제반 여건이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제 무용 수업운영과 관련하여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기술 및 전략 등 수업운영에 대한 이해가 직전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창의적인 교사들을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고상준(2010), "창조성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발문수업", 창조교육학회, **창조교육논총 12권**, 143-163.
- 김유미 외 6인(2011), **해피클릭! 수업 노하우 발견**, 서울:학지사.
- 김지영(2013), "초등학교 무용분야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 공동체 사례 연구",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20권 4호**, 67-91.
- 박지영(2010), "체육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고등학생의 체육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승배 외 4인(2006), **효과적인 교수법**, 서울:아카데미프레스.
- 신동로 외 1인(2001),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이 자기 효능감 향상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19권 1호**, 319-342.
- 신혜숙 · 조진영 (2014), "무용예술강사의 교수효능감과 직업정체성과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31(2)**, 1-16.
- 유상석 외 1인(2002), "체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교사의 내적동기 유발 전략", 한국유아체육학회, **한국유아체육학회지 3권**, 135-152.
- 이병준 외 1인(2014), "예술강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예술강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제 9권 제 5호**, 1-20.
- 임채식 외 5인(2008), **실기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 정지혜 외 2인(2014), "중학교 예술강사의 창작무용 수업 실천과정에 대한 교육적 해석",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35권 1호**, 55-77.
- 정석기(2010),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좋은 수업설계와 실제**, 서울: 원미사.
- 조은숙 외 1인(2009), "중학교 무용예술강사 무용수업의 재미요인과 수업만족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집 3호**, 99-117.
- 최경희(2007)a, "무용교사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의 직전교육 및 교사 자격취득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18집 1호**, 151-188.
- \_\_\_\_\_(2007)b,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무용교사 양성의 방향정립에 관한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18집 2호**, 53-68.
- \_\_\_\_\_(2014),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동향 및 앞으로의 과제", 부산대학무용계 발표 자료집.
- 탁지현(2014),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술강사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집 3호**, 17-43.

- 황혜원(2008).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무용강사 인식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한나(2012). "무용 예술강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Barr, S.(2009). Examining the technique class: re-examining feedback, *Research in Dance Education*, Vol.10, No.1, pp 33-45.
- Kassing, K. & Jay, D.M.(2003). *Dance Teaching Methods and Curriculum Design*, Human Kinetics.
- Gibbons, E.(2004). Feedback in the Dance Studio,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Volume 75, Issue 7, 38-43.
- \_\_\_\_\_ (2007). *Teaching dance : the spectrum of styles*, Bloomington, IN : AuthorHouse.
- Purcell, T.M.(1994). *Teaching Children Dance, Becoming a Master Teacher*, Human Kinetics.
- Rink, J. E.(1997). Teacher Education Programs: The Role of Context in Learning How to teac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68, 1 17-24.
- Mainwaring, L.M & Krasnow, D.H(2010). Teaching the Dance Class: Strategies to Enhance Skill Acquisition, Mastery and Positive Self-Image, *Journal of Dance Education*, Volume 10, Issue 1, 14-21.
- 2014년 4월 18일자      자문위원회 인터뷰 내용
- 2014년 6월 6일자      자문위원회 인터뷰 내용